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힘펑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o.kr 080)320-7700

金보다 값진 도전 2010밴쿠버 장애인 동계올림픽이 열린 19일(한국시간) 캐나다 휘슬러 패럴림픽 파크에서 벌어진 크로스컨트리 스키 여자 좌식 5km에서 서보라미가 역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휠체어컬링 "미국 꺾고 결승 가자"

패럴림픽 獨 꺾고 내일 미국과 준결승전

한국 휠체어컬링 대표팀이 2010 밴쿠버 동계 장애인올림픽에서 4강에 올랐다.

한국은 19일(이하 한국시간) 캐나다 밴쿠버 패럴림픽 센터에서 벌어진 대회 예선 풀리그 마지막 9차전에서 독일을 9-2로 완파했다.

한국은 이로써 6승3패를 기록해 캐나다(7승2패)와 미국(7승2패)에 이어 3위에 올라 준결승에 나가게 됐다.

캐나다는 미국과 동률을 이뤘으나 예선리그 맞대결에서 이긴 팀이 우위가 되는 승자승 원칙에 따라 1위로 올라갔고 미국은 2위로 밀렸다. 마지막 4강 티켓은 5승4패를 기록한 이탈리아가 가져갔다.

한국은 오는 21일 2위 미국과 결승행 티켓을 두고 단판대결을 벌인다.

미국을 꺾는다면 캐나다와 이탈리아의 승자와 같은 날 금메달을 두고 결승에서 맞붙는다.

김우택 휠체어컬링 대표팀 감독은 "미국은 역대 전적을 따져도 우리가 우위이고 최근에도 많이 이겼다"며 "예선리그에서 졌던 것은 대회 초반에 컨디션 난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2003년 말 휠체어컬링이 국내에 도입된 뒤 처음으로 나선 올림픽에서 4강을 쐈다는 데서 쾌거를 이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임학수(21·하이원)는 크로스컨트리 스키 남자 시각장애 10㎞ 클래식에서 29분07초2를 기록해 출전자 16명 가운데 6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KIA '팔꿈치 부상' 로드리게스 퇴출

대체 투수 물색…이대진도 출장 불투명 마운드 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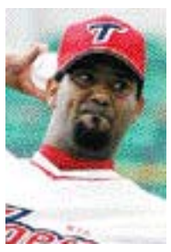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시즌 개막을 눈앞에 두고 외국인 투수 리카르도 로드리게스(32)를 퇴출하기로 결정, 시즌 초반 마운드 운용에 빨간불이 켜졌다.

선발 후보군에 포함된 이대진이 기흉수술을 받아 출장이 불투명한데다 로드리게스의 공백으로 마운드를 당초 6선발에서 5선발 체제로 꾸려야 하는 등 마운드 운용에 연쇄 차질이 우려된다.

KIA는 19일 "로드리게스의 팔꿈치를 정밀검진한 결과 오른쪽 팔꿈치에 고정된 핀을 바로잡아야 하는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며 "이에 따라 로드리게스를 대체할 외국인 투수를 물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로드리게스는 2004년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뛰다가 팔꿈치에 타구를 맞아 골절상을 입었다. 이 때문에 부러진 뼈를 핀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투구하는 등 부상 재발 위험에 시달려 왔다.

KIA는 "로드리게스가 18일 캐치볼 도중 통증을 호소해 정밀 검진을 받았다"며 "수술 후 재활 기간에만 2~3개월이 필요하기 때문에 퇴출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즌 초반 KIA의 마운드 운용에 큰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이대진이 기흉 수술을 받았고 주축 투수인 로드리게스마저 빠지면서 마운드에 공백이 생겼기 때문이다.

조범현 KIA 감독은 "두 투수가 빠지면서 투수진 운용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다"며 "애초 4월까지는 6선발 체제로 투수진을 꾸리려 했으나 5선발 체제로 바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

김희걸 3이닝 6실점

KIA 두산에 7-8 패

기아 타이거즈가 두산과의 시범경기에서 고배를 마셨다.

기아는 19일 광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이스와의 시범경기에서 3이닝 6실점한 김희걸의 부진 탓에 7-8로 무릎을 꿇었다.

김희걸은 두산 이성열과 최준석에게 각각 2타점을 허용, 패전의 멍에를 썼다. 정규시즌 선발 로테이션 진입을 노리는 김희걸은 이번까지 2패째를 기록했다.

두산 선발 조승수는 4이닝 4실점했으나, 타선의 지원으로 승리 투수가 됐다.

한편, 롯데는 넥센을 7-0, 삼성은 SK를 14-6, LG는 한화를 10-9로 꺾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양키스맨' 박찬호 1이닝 퍼펙트

탬파베이전 공 8개로 3·4·5번 셧아웃

박찬호(37)가 뉴욕 양키스 유니폼을 입고 공식 경기에 처음 등판했다.

박찬호는 19일 미국 플로리다주 탬파의 조지 스타인브레너 필드에서 열린 탬파베이 레이스와 시범경기에 중간 계투 투수로 나와 1이닝 동안 세 타자를 깔끔하게 막았다.

선발 하비에르 바스케스와 로물로 산체스, 분 로간에 이어 5회초 네 번째 투수로 마운드에 오른 박찬호는 탬파베이의 클린업 트리오를 상대했다.

3번 타자 벤 조브리스트, 두 해 연속 30홈런-100타점을 넘긴 강타자 카를로스 페냐를 범타로 처리한데 이어 5번타자 윌리 아이바르를 상대로는 투스트라이크를 잡은 뒤 145㎞짜리 투심 패스트볼을 바깥쪽에 꽂아 선 채로 삼진을 잡아냈다. 박찬호는 공 8개만 던지고 6회부터 마운드를 데이비드 로버트슨에게 넘겨줬다. 8개 중 7개가 스트라이크존에 꽂혔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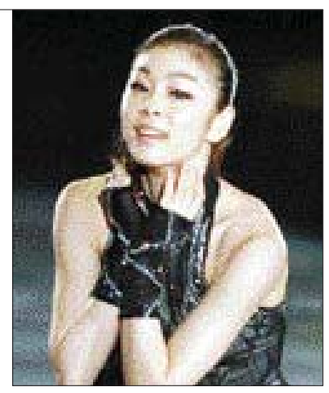
'앙코르 밴쿠버' 시즌 마지막 출격 김연아 22일 토리노 입성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최고의 연기를 펼치며 금메달을 목에 건 '피겨퀸' 김연아(20·고려대)가 이번 시즌을 화려하게 마무리 지으려 마지막 도전에 나선다.

김연아는 21일(한국시간) 공식 연습을 시작으로 막을 올리는 2010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21~28일)에 출전하러 22일 이탈리아 토리노에 발을 딛는다.

이번 시즌 김연아는 2006년 데뷔 이래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 지난해 10월 파리에서 열린 시즌 첫 그랑프리 대회를 석권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2월 동계올림픽까지 출전한 모든 대회를 휩쓸었다.

모든 부담을 떨쳐낸 김연아는 이번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다시 한 번 한국 최초로 2연패를 달성할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



생활 게시판

화촉

▲박기범(삼영주유소 대표)·노춘이씨 장남 형민(군의관)군 김인수(전남대 교수)·강명자씨 장녀 재경(카톨릭의대 성모병원 전공의)양=20일(토) 오후 5시 광주시 동구 삼영웨딩홀.

▲이강창(사업)씨 차남 선제군 정남진(광주 양산초교 교장)씨 장녀 지현양=20일(토) 낮 12시40분 금호웨딩전당 30층(아도니스 홀)

부음

▲강월아씨 별세 나건생·경생·완생·란생·화생·신씨 모친상=발인 20일(토) 무등장례식장 203호. 062-515-4488.

마음까지 편안한 -
금호장례식장
☎ 227 - 4000
故 고재암 님 (남/53세)
未亡人 민경희
女/壻 고시리 김태용, 고이라
호 실 호실 101 호
발 인 03월 20일
장 지 영락공원
故 변우섭 님 (남/90세)
子 변형섭, 변성종
女/壻 변경숙 / 나승용
변영수 / 임헌정
호 실 호실 402 호
발 인 03월 20일
장 지 화순 불교사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넓은주차장 - 정갈한 음식!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약속!
프리드
대한민국장례문화!
현대종합상조가 책임지겠습니다
가입문의 1566-4499
현대종합상조 전속보험 노주현